

# 광산구,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도약

### 배우고 알 권리·일할 권리·누빌 권리' 3대 권리증진 목표 프로그램 운영 56개 기관과 협력 623명 지원

광주 광산구가 권리를 실현하고 활발한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장애인 평생학습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4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으로부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이후 배우고 알 권리, 일할 권리, 누빌 권리 등 장애인의 3대 권리증진을 목표로, 다양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장애인 평생학습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지역 56개 기관과 연계·협력하는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장애인 623명이 더 나은 삶을 향해 꿈꾸고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광산구는 '배우고 알 권리' 사업으로 주간보호센터 등 장애인 시설 6개소와 협력해 발달 장애인 102명에게 '도전 AI 예술 배움터'를 운영하고, 문화예술 및 인공지능 체험을 통해 디지털 도구 사용의 장벽을 낮추는 것은 물론 참여자들에게 새로운 학습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애인이 직접 '권리를 주장'하는 프로그램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장애인 당사자가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강의 시나리오와 인권 연극 대본 제작에 참여해 관내 학교 6개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150여 관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극을 시연했다.

장애인 당사자의 권의 옹호와 자기 주도성 향상, 지역사회 내 장애 인식 개선 등 의미 있는 메시지는 전달 등 큰 울림을 선사했다는 호평이 이어졌다.

광산구는 또 장애인의 '일할 권리' 강화를 위해 광주 수어교육원과 협력 사업도 진행했다. 올해 처음 진행한 '한국 수어 농인강사 육성 과정'이 대표 사례다.

현재 '한국 수어 농인강사 육성 과정' 과정 수료자들은 광산구 지역 어린이집, 유치원 원아 200여 명을 대상으로 수어 교실을 운영 중이다.

어린이들에게 장애인 인권과 존중 의식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의지도 강화하는 등 '일할 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게 광산구의 설명이다.

광산구는 2024년에는 심화과정을 운영할 예정으로, 수어강사 양성소와 활동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누빌 권리'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가족 미술심리 프로그램'도 강사와 학습자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광산구 평생학습지도사 양성 과정을 통해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평생학습 동아리 강사진들은 직접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가족 기능향상 및 장애 증상 완화를 위한 다양한 미술활동을 진행했다.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강사는 "장애인과 상담이라는 나의 편견을 버리고 오히려 인간 대 인간으로서 장애인의 세월이 묻은 무궁한 이야기에 녹아들게 됐다"며 "강사인 나도 성장하고, 학습자인 장애인도 함께 성장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학습자들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 너무 좋았다"며 "상당부분 순간에는 스트레스 없이 웃음이 나고 너무 즐겁다. 꼭 다시 상담받고 싶다"고 만족해 했다.

이같은 다양한 정책 덕분에 광산구는 2년 연속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에 선정됐으며, 올해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광산구는 단순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넘어 장애인의 권리증진과 사회참여를 목표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며 차별 없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광산구 주민참여예산위, 청년·외국인·장애인 참여

신규 52명 등 91명 구성... 지난해 성과 공유, 올해 예산 밀그림



광주 광산구는 지난 17일 구청 운산원홀에서 위촉식을 열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52명을 위촉했다.

광산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이날 위촉한 신규위원 52명과 연임위원 39명을 포함해 총 91명으로 구성됐다. 신규위원은 지난해 11월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선출했다. 임기는 2025년 12월 말까지 2년이다.

광산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시민 의견수렴 ▲시민 대상 주민참여예산 홍보 활동 ▲참여예산학교 참여 ▲제안 사업심사 ▲사업 모니터링 등 활동을 수행한다.

광산구는 다양한 시민의 시선과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이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 대대적인

변화를 줬다. 젊음, 다양성 등 광산의 도시적 특성과 상생 공동체 실현을 고려해 청년, 외국인주민, 장애인 등이 신규위원으로 참여한 것.

각 세대, 계층에 필요한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편성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위촉식 후에는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제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시민이 주도하는 주민참여예산제 밀그림을 그려보는 시간도 가졌다.

광산구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이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이롭게 하고,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구현하는 동력이 되도록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우산지구 우수저류시설 공사

### 기술검증·설계변경 3월 재개

광주 광산구는 "설계 오류로 중단된 우산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공사를 오는 3월 중 재개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광산구는 "문제 원인을 진단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구조적 안정성 및 시공 용이성 등을 고려한 보강 방안을 마련했다"며 "내달 중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강 방안에 대한 기술적 검증과 설계변경 등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광산구 우산동 우수저류시설 설치 공사는 설계 오류와 갑작 미비 탓에 공정률이 52%였던 지난해 7월 26일 중단됐다.

공사는 작년 말 준공을 목표로 2021년 12월 시작됐는데, 철도와 맞닿은 작업 현장에 대형 건설기계 배치 공간을 마련하지 않은 설계 오류로 차질을 빚게 됐다.

우수저류시설은 배수 용량을 넘는 비가 오면 빗물을 임시로 저장해 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으로, 우산지구 시설은 9660t 용량으로 설계됐다.

국비 73억원, 시·구비 각 36억5000만원 등 총 146억원을 투입할 예정인데 설계변경과 일정 지연에 따라 사업비는 조정될 수도 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공사 중단 사태의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특정감사를 진행 중이며, 행정 과실이 드러나면 관련자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바이오스타 줄기세포연구원, 난치성 환우 지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 광주시 5개 자치구협의회 요청

성체줄기 세포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바이오스타 줄기세포연구원(원장 라정찬)이 광주지역 난치성 질환 환우들에게 무료 치료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24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 광주시 5개 자치구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라정찬 원장은 '아무도 놓치지 않는 세상 이야기'를 주제로 광주 라마다호텔에서 재생의학과 관련한 강연회를 가졌다. 이날 강연회에는 줄기세포 등 재생의학에 관심이 있는 의학계 종사자 170여명이 참석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시 5개 자치구 회장들은 이날 강연회가 끝난 후 라 원장에게 광주지역에서 불·난치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우들의 무료 줄기세포 치료 지원을 요청했으며, 라 원장은 줄기세포 생명재단을 통한 무료 치료 지원을 약속했다.

라 원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우리나

라의 평화통일을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루속히 통일이 돼 북한 난치성 환우들에게도 줄기세포 치료의 길이 열리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강현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시 부의장 등 5개 자치구 회장들도 지역 난치병 환우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줄기세포 생명재단에 정기후원과 자원봉사 활동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라정찬 원장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시 5개 자치구 회장과 광주지역 난치성 환우의 무료 치료 소식이 알려지면서, 난치병 관련자들의 문의도 쇄도하고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필호 광산구협의회 회장은 "무료 치료 관련 문의 전화가 빗발치는 등 지역 난치병 환자들이 꿈과 희망을 갖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아동의 편에서 아동 권리 지키고 대변한다"

### 광산구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4명 위촉 첫 운영



박병규(왼쪽에서 다섯번째) 광산구청장이 지난 23일 구청에서 열린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위촉식에 참석해 광산구 첫 아동권리 옴부즈퍼슨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산구 제공>

광주 광산구가 아동의 편에서 목소리를 대변할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을 첫 운영한다.

광산구는 지난 23일 구청 2층 회의실에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열고 류리 변호사, 손명동 광주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영철 광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김동관 세이브더칠드런 광주아동권리센터장 등 4명을 광산구 첫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으로 위촉했다.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유엔(UN) 아동권리 협약'을 기반으로 아동의 권리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전문가 중심의 독립 인권기구다.

옴부즈퍼슨은 앞으로 2년 동안 독립적 지위를 갖고 광산구 아동의 입장을 옹호하는 대변인으로 활동한다. 구체적으로 아동권리 침해 사례 발굴·조사를 비롯한 상담 및 구제, 아동권리와 관련한 정책, 제도, 법령 개선을 위한 제안 등을 맡게 된다.

광산구는 부서와의 연계, 정책 반영 등을 통해 옴부즈퍼슨의 활동이 실질적인 아동권리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내 분의 옴부즈퍼슨이 앞으로 아동의 시각과 입장에서,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지켜주는 진정한 수호자가 돼주길 믿고, 기대한다"며 "옴부즈퍼슨과 함께 모든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한 아동친화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